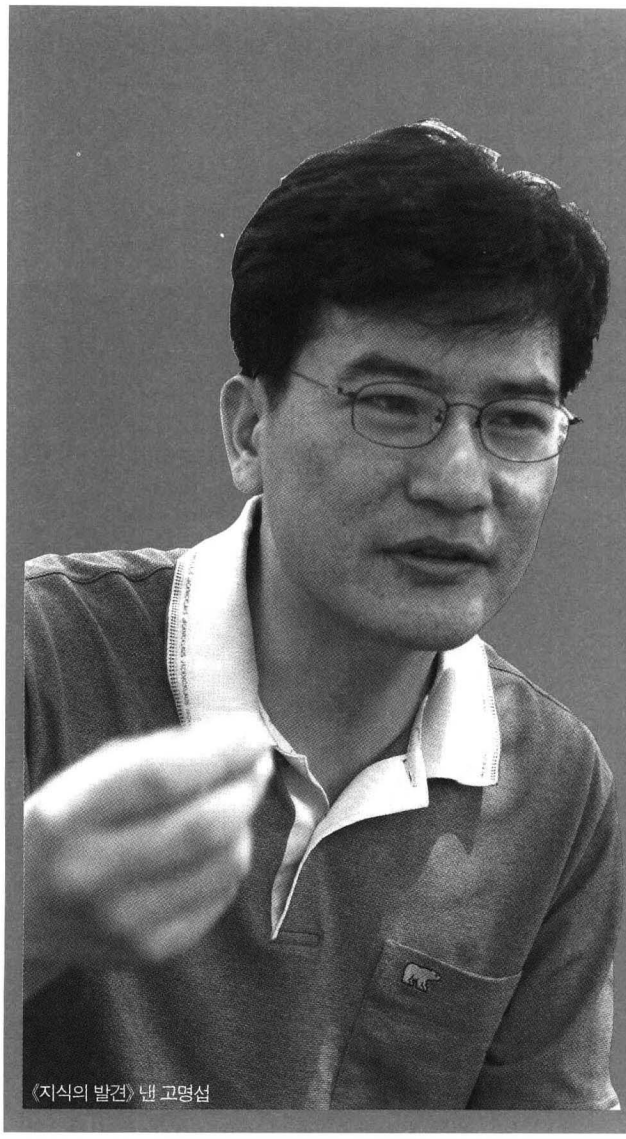
《지식의 발견》 낸 고명섭

오, 래디컬!, 문제적 기자와 문제적 담론이 만났다

"기자 신분이 아닌 발언하고 싶은 한 사람의 독자의 입장에서 쓴 것이기 때문에 혹평은 확실합니다. 팩트와 논리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었죠. 제 논리가 부족했다 하더라도 원고를 내미는 데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제 원고에 달리 발언하고 싶은 사람이 또한 생겨난다면, 그것에 관한 사유는 더욱 깊어질 수 있는 것이죠."

찢겨진 '네이션' 한반도에서 민족주의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도구적 이성'이 벌이는 카니발적 파행은 계몽이란 기획으로 수습될 수 있는가. 오늘, 지식인은 어떤 존재여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겨레〉 출판 · 서평담당 기자로 일했던 고명섭 씨의 《지식의 발견》은 만만찮은 지적 질문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제시한다. 서중석의 《배반당한 한국민족주의》, 권용선의 《이성은 신화다, 계몽의 변증법》 등 그에 대한 대답을 구하고자 본격적으로 들춘 책만 19권, 팩트와 논리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치기로 읽은 책만 수십 권이다. "문제적 담론들에 관한 진중한 고민을 담은 책들을 꼼꼼히 읽고 그 담론들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을 서술한 일종의 서평"이라고 밝히는데, "일종의 서평"이란 표현은 그만의 겸손화법. 각기의 주제 아래 두릅으로 엮인 책들을 읽어내는 그의 논리는 한 권 한 권 더할수록 자가발전을 일으키며 지적 쾌감을 선사한다.

"깊이 있게 책을 읽고 그것을 평가하는 글을 써보고 싶었습니다. 나름의 기획안을 정리해 〈인물과 사상〉측에 제안을 했지요. 책을 통해 한국사회의 논점이 될 만한 영역과 대화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었을 뿐, 민족주의와 근대성 등 책 속에 분류된 큰 주제를 처음부터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쓰다보니 조금씩 더 구체적인 문제로 나아가게 되더군요. 쓰는 저도 즐거웠고 독자들도 그것을 반겼지요."

'한국 지식인들의 문제적 담론 읽기'라는 부제에서 내비치듯, 그는 책 선정에 있어 몇 가지 원칙을 고수했다. 우리사회에 쟁점을 던지는 책이되 반드시 한국인 저자가 쓴 책이어야 한다는 것이 제1원칙. 지식의 가치가 단순한 지식자본 축적에 있지 않아야 한다는 지론만큼, 외국이론과 사상을 소개하는 책을 고를 때도 한국인 저자의 이름을 확인했다. 한국인 저자의 스크린을 거친 외국이론과 사상은 본디의 가치를 넘어 지금 이곳의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한다. 저자들이 제시한 논점

에 문제가 있다면, 자신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펼쳐보겠다는 것이 제2원칙.

"기자 신분이 아닌 발언하고 싶은 한 사람의 독자의 입장에서 쓴 것이기 때문에 혹평은 확실합니다. 팩트와 논리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었죠. 제 논리가 부족했다 하더라도 원고를 내미는 데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제 원고에 달리 발언하고 싶은 사람이 또한 생겨난다면, 그것에 관한 사유는 더욱 깊어질 수 있는 것이죠."

냉혹한 비판 앞에는 겸허한 수용이 있다. 서중석의 《배반당한 한국민족주의》를 놓고 민족주의 개념을 엄밀히 살핀 그의 글 〈찢겨진 '네이션' 혹은 민족 대 국가〉를 읽은 박노자는 "민족주의라는 특수담론으로 부르주아 국가체제를 넘어설 수도, 인간해방이라는 보편적 이상을 실현할 수도 없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박노자의 비판에 그는 김동춘의 《근대의 그늘 : 한국의 근대성과 민족주의》를 다시 가져와 생산적인 논쟁을 이어갔다. 박노자의 글 〈고명섭의 '민족주의론'에 질문한다〉까지 보론으로 얹힌 책은 세련된 논쟁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한편,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에 대한 그의 견고한 학습을 엿보게 한다.

"민족주의 담론이 사회적 담론으로 부상한 것은 1980년대 말 즈음부터였습니다. 민족주의 담론이 제대로 등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최근 탈민족주의라는 이름 아래 민족주의가 비판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한 명확한 개념인식이 없던 탓이었지요. 국가주의는 이승만 정권 이래 지금까지도 굉장히 강력한 담론입니다. 항일민족주의로 출발한 한반도 민족주의는 국가주의의 횡포 속에 억압 혹은 압살당해 왔지요."

국가주의든 민족주의든 '내셔널리즘'으로 통하는 서구와 달리, 그 둘이 극단적 개념으로 나뉘어 진통을 겪는 것은 남북으로 찢겨진 '네이션'이 한반도이기 때문. "국가주의와 민족주의가 혼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의 주장은 이 지점에 근원을 두고 있다.

한편 난해하기 짝이 없는 철학서를 해박한 지식으로 소개했던 기자 시절의 공력까지 더한 '근대성/계몽의 이해와 넘어서기' 부분은 근래 유행하는 철학적 담론들을 거침없이 독파한다. '이성의 맹신'을 동력으로 생산된 잘난 근대의 기획이 이성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지는 과정을 살핀 대목, 김용옥의 저작을 통해 서구중심주의를 해체해 보려는 대목 등은 유효성을 상실한 듯했던 철학의 가치를 일깨운다. 그의 화법을 빌리자면, "존재든 사유든 모든 것을 그 뿌리까지 파 들어가 발본색원한다는 뜻을 담은 형용사 '래디컬'의 가장 적절한 사례 가운데 하나가" '고명섭의 텍스트 읽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수학적 이성이 문제입니다. 1+1=2라는 도식에 부합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정하는 수학적 이성의 극단적 폐해는 아우슈비츠가 보여줍니다. 인간을 해방시킬 줄 알았던 이성이 인간을 파괴하는 도구가 된 겁니다. 아도르노는 '계몽을 계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을 제어하는 것은 감성이 아니라 이성입니다. 계몽이성을 벗어나는 데는 이성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대세계에서 계몽의 문제가 부각되었지만, 탈근대 시대가 탈계몽의 시대가 아닌 것처럼. 계몽은 인간 삶이 있는 한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는 주제라 생각합니다."

관념어가 빈번히 등장했다 싶었던지 그는 "굉장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오래 고민을 하다보니 나타난 소박한 사유일 뿐"이라고 입장을 갈무리한다. 지당한 말씀이다. 리터러시 능력이 결핍된 오늘의 우리들에게 세계 혹은 텍스트에 대한 오랜 고민만큼 필요한 것은 없다. 그가 자신의 말의 진의는 '소박한 사유'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 주장한다 해도 말이다.

그를 받쳐줄 수사로 '논리적 분석과 통찰'을 들 법하지만, 그를 이해하는 데 있어 모호성과 비논리성의 영역인 시를 빼놓을 수는 없다. "시를 얻을 수 있다면 목소리를 잃어도 좋다"고 선언할 정도로 그를 홀렸던 시는 그러나 일찍이 그의 것이 되지 못했다. 지난 2000년 비로소 시집 한 권을 갖게 된 그는 "숨쉴 때 목적의식을 갖고 쉬는 것이 아니듯, 시쓰기도 그렇게 이뤄진다"고 말한다.

"시를 쓰면 굉장히 좋습니다. 괴로움이 그냥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고 무언가를 만드는구나라는 소소한 충족감에 홀려 계속 시를 썼습니다. 요즘에는 시를 쓰기보다는 세계를 시적으로 보는 것, 더는 산문은 시가 될 수 없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호성과 비논리성이라는 시어 고유의 특성을 명료하고 논리적인 산문세계에 옮겨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발견》을 통해 '한국 지식인들의 문제적 담론 읽기'를 마친 그는 새로운 작업을 기획하고 있다. '한국의 문제적 지식인 읽기'라면 적절한 표현이 될까. 그는 극한의 삶을 산 사람들의 사유세계를 절개해 그 단면을 보여주고 싶다고 이후 작업의 기획의도를 밝힌다.

"사유 혹은 행위의 극한에서 새로운 통찰은 생겨나는 법이지요. 그 지점을 들여다보면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마르크스주의가 쇠퇴하면서 해방의 이념이 사라졌어요. 전망을 잃은 사람들은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원적 고민을 전면적으로 다시 해야 할 때입니다. 만만찮은 주제이다보니 이거 감당이나 되는 것인가 하고 고민이 됩니다."

그는 이어 "삶의 비밀이 있다면 용기"라는 명제를 내밀었다. "자신에 대한 문제해결은 곧 세계에 대한 문제해결"이라고 부연하는데, 참고로 그것은 오늘, 지식인은 어떤 존재여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지식의 발견》에서 그가 에필로그로 쓴 〈지식인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읽어보면 "삶의 비밀이 있다면 용기"라는 조금쯤 관념적인 명제가 어떤 함의를 품고 있었는지, "오, 래디컬!"하고 무릎을 치게 될 것이다.

취재_ 박용두 기자 | 사진_ 박신우 기자